

어설픈 경찰 대응에 불안감 커진 시민들

폭행 현장 그냥 지나치고, 사건 신고자에게 직접 조서 작성 맡겨 가정폭력 피해자와 전화 연결·납치미수 신고자-대상자 만나게 해 수갑도 없이 검거 나섰다 낭패까지... 허술한 경찰 행정 지적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일부 경찰들의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경찰 행정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폭행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가하면 사건 신고자에게 직접 경찰서 컴퓨터로 사건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수갑도 없이 범죄자 검거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16일 광주·전남지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순의 한 지구대에서는 주취 난동 사건 신고자 A씨에게 직접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토록 해 반발을 샀다. 화순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음주소란을 피운 주취 난동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경찰로부터 "직접 조서를 쓰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실제 담당경찰의 의자에 앉아 경찰 컴퓨터로 조서를 직접 썼으며, 경찰

로부터 '나보다 컴퓨터를 잘하네'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신고자가 컴퓨터에 앉아 직접 조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조사과정에서 강요나 압박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함평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경찰이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동영상 SNS를 통해 퍼지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중이던 B(37)씨는 이날 낮 12시 49분부터 5분간 C(40)씨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는데,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차장으로 해당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그냥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전화로 112

신고 출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 담당 경찰에게 연락하며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경찰이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나주에서는 성희롱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시민 도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제압하고도, 수갑을 쥘지 않아 현행범을 놓칠 뻔 한 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교대시간에 미성년자 성희롱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못 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경찰의 어설픈 사건 처리 방식이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북부경찰은 가정폭력사건 합의 협박 의혹이 있는 E(60)씨 앞에서 E씨의 휴대전화로 폭력 피해여성에게 협박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경찰이 협의를 중용·협박 당한 의혹을 발견했다면, 피해 여성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내를 매주병으로 때린 남편(60)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 남편의 친구인 E씨가 경찰서를 찾아 합의 절차를 묻는 과

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은 물론 E씨 등과 합의는커녕 전화 통화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상태다. 경찰은 "E씨가 찾아오기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E씨가 갑자기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여성과) 합의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뒤 전화연결까지 하는 것을 보고 강요나 협박 등이 의심돼 사실 확인차 (E씨의 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달 18일 광주광안경찰의 한 지구대에서는 '소년 납치미수'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고자와 범의 의심자인 신고 대상자를 한자리에 만나노라던 공간까지 마련해 줬다고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를 한자리에 만나게 한 것을 잘못된 조치"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뒤집힌 어선 에어포켓서 '100분 사투' 목포해경 헬기 등 동원 2명 극적 구조

신안 안좌도 해상서 신안군 안좌도 해상에서 15일 새벽 어선이 전복됐으나, 배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구조됐다. 이날 새벽 2시 50분경 신안군 안좌면 북호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흑산도 선적 어획물운반선인 S호(20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경은 경비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 서해해양특수구조대, 헬기를 보내 구조에 나섰다. 사고 당시 선장 A(58)씨는 뒤집힌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 B(58)씨는

전복된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사고 접수 1시간 40여분만인 새벽 4시 30분경 해경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다. B씨는 구조 직후 해경에게 "배가 순간적으로 뒤집히면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고가 생긴 걸 알았다"며 "사료가 배에 잔뜩 있어 밖으로 탈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조에 나선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최석옥(40)경사는 "폐어선을 활용해 전복 어선에서 에어포켓 속에 있는 구조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실전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광주시 상대 무효 확인소송 패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7년 4월 26일 마곡근린공원 등 4개 공원 개발사업 공고를 냈다. A건설은 2017년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냈고 B사도 4개 회사와 B컨소시엄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마곡근린공원에 4곳, 송암과 수량공원 각 3곳, 봉산근린공원 1곳이 제안서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건설은 "B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

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으며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건설은 "제출된 제안서는 사후에 변경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B컨소시엄에 군사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광주시는 총 9개 평가요소 105점의 배점 중 6개 평가요소 70점의 배점을 시 담당 부서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불공정한 심사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B컨소시엄에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정희가 한게 뭐냐" 긴급조치 9호 위반 남성 사후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사후 2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교법판사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의 기소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세)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농업에 종사하며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경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주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중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눈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행사 대표·파워블로거들 남도 팸투어 16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한벽당에서 열린 남도여행 팸투어에 참가한 전국 여행사 대표와 파워블로거들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시와 그림을 넣은 자신만의 부채를 만들고 있다. /최혜배 기자 choi@kwangju.co.kr

'폭행 게임'으로 친구 숨지게 한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이 게임을 하며 친구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광주일보 2019년 6월 12일자 6면)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진술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의 사인은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이 뒤덮였으며,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김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성관계 몰카 촬영한 경찰관 '해임 정당'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찰관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6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에 따르면 2017년 5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J12 12point.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610973, 576214302, 691749802, 87414002.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